

일본 불교 미술전

시간·공간 초월한 '감동'

고려佛畵 재현전

20일부터 경주박물관

박물관에서 불교미술 관련 전시회가 이어지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통도사, 내년 1월 11일까지

하쿠오~가마쿠라 시대때 日 국보 9점 등 83점 선봬

수월관음도·16나한도 등 28점 강록사 화백 유화로 재현·전시

특히 '서역미술' 전에서는 80여 년간 박물관 수장고에 갇혀있던 서역벽화가 보존과학의 힘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가 하면, '일본의 불교미술' 전에서는 일본 국보 9점, 중요 문화재 25점을 포함한 일본 불교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전시회가 열리기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마리의 기룡빈가를 표현한 일본의 국보 '우피화판'.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박영복)에서 열리는 '일본의 불교미술' 특별전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중국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일본만의 독특한 불교미술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약사여래좌상(藥師如來坐像)' '지옥초지(地獄草紙)' 등 일본 불교미술을 대표할 작품을 포함한 하쿠오(白鳳) 시대부터 가마쿠라(鎌倉) 시대까지의 불교조각, 불교회화, 금속공예, 전적, 고고품 등 62건 83점의 불교

문화재가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전에 전시되는 전적류에는 헤이안(平安) 시대에 제작된 <일본서기(日本書紀)>와 사경이 눈에 띈다. 특히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경전 <회인과경(繪因果經)>은 경전의 뜻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아래에 경문을 적어 일본화 된 불교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소가죽으로 만든 부채형 화만(불전을 장엄하게 꾸미기 위해 생하나 조화로 꾸미는 장식)인 국보 '우피화판(倭皮華鬘)'은 소가죽을 투영해 보살화당



◇'고려불화재현전'에 전시된 '수월관음도'.

조문을 배경으로 서로 마주보는 두 마리의 기룡빈가(龍鳳)에 나오는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한 상상의 새를 표현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나라박물관에 소장돼 있으며, 헤이안 시대 불화의 특색을 잘 드러낸 유물로 평가된다. 또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고려불화 재

현전'은 원로 서양화가 강록사(姜鹿史) 화백에 의해 유화로 재현된 고려불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강 화백이 재현한 고려불화 대부분은 일본 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고려불화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수월관음도, 보현보살, 아미타여래, 16나한도 등 2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180여 점의 고려불화 중 130여 점이 일본으로 유출된 가운데 현재 국내에는 10여 점만이 남아 있는 실정. 강 화백은 "고려시대 전통미술의 백미인 고려불화 대부분이 일본에 유출돼 우리 국민이 직접 보기 힘든 것이 안타까워 5년 동안 고려불화 재현작업에 매달렸다"며 이번 전시회 의미를 전했다.

이외에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서역미술' 특별전(본지 450호)을 기념한 학술강연회도 개최한다. 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12월 18일 '중국 신강지역 출토 벽화에 관하여'를 주제로 가을일(黃應逸) 신강 위구르자치구 박물관 연구원의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천미희·오유진 기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아버지의 회한

"탑을 세운 뒤 전지가 행통하고 삼한이 통일되었으니, 이것이 아저 탑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고도의 전략이라 보아야 할 것인가? 아무튼 백제 기술진을 초빙하여 탑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백제에 보물과 비단을 보내어 기술자를 부탁하자 아버지가 소장(小所) 2백여 명을 거느리고 황룡사 9층목탑의 건립에 참여한 것이다.

황룡사 9층목탑의 영험함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고 보는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의 시간이다. 외침을 막기 위해 황룡사 9층목탑을 조성하였지만, 결

근데 아버지가 처음 탑의 기둥을 세우던 날 꿈에 백제가 멸망하는 행상을 보았다. 그는 일을 멈추고 고민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어둠 속에서 노승 한 사람과 장사 한 사람이 그 기둥을 세우고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장면을 보고서야 아버지가 다시 그 탑 건립에 힘쓰는 것이다. 결국 황룡사 9층목탑이 완성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꿈처럼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던 것이다.



◇경주 남산탑곡마을에 있는 9층탑. 황룡사9층목탑을 복원하는데 가장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이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황룡사 복원의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황룡사 9층목탑이 익산 양식에 의하여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 기술진 황룡사 9층목탑 건립 참여 완성 수년후 나라의 운명 다할 줄이야...

과적으로는 단순히 외침을 막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삼국통일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황룡사 9층목탑을 조성하는 데에는 드라 마릭한 설화가 전한다. 그것은 바로 백제 장인 아버지(阿非知)를 초빙하여 황룡사 9층목탑을 건립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다. 사실 황룡사탑을 조성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백제의 끊임없는 침입이 있었다. 이 때문에 당 태종에게 구원을 청하다가 부인 돌려 받기 위해 작은 돌을 쌓는 것처럼 만들 어놓은 것이 특이한 점으로 지적됐다.

는 점이다. 백제 기술진에 의하여 지어졌다면, 목재가 훌륭한 사비 양식과 풍성한 익산 양식 둘 중의 하나를 따랐을 것이다. 그런데 황룡사 9층목탑이 645년에 건립되었고 익산 양식의 대표적인 탑인 미륵사목탑이 640년에 조성되었으니, 황룡사 9층목탑은 미륵사목탑과 더 많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경주 남산탑곡마을에 묻힌 보문대왕 세자빈의 9층탑이다. 이 마에 9층탑은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보아 황룡사 9층목탑에 가장 가까운 형상으로 보고 있다. 이 탑곡의 마에 9층탑도 미륵사탑처럼 풍성한 목재인 점으로 보아 황룡사 9층목탑이 미륵사목탑과 유사한 형상 일 가능성은 더욱 높은 것이다.

과연 이러한 대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고민스럽다. 신라의 포용력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으로서 적을 물리치는

■경주대 문화재학부

12월 3일 충남 공주시 수촌리 백제고분군에서 무령왕릉 이후 최대의 국보급 유물이 발굴됐다. 이후 발굴조사를 통한 고대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주 백제 왕릉 사지 발굴조사에 이어 월정사지, 회암사지 등 옛 사찰 터에 대

절터 발굴 2곳

한 발굴조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의 월정사지 발굴조사와 경기도 박물관과 기전문화재연구원 회암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수백 년 전 절의 모습을 그려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월정사지 2차 발굴

적광전~탑~용금루간 보도석열 고려·조선 건물지·유구 발견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은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역사 2차 발굴 조사 결과 적광전과 탑, 용금루를 잇는 보도석열을 확인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조사단의 조사결과 이 보도석열은 2차례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생토 위에 1m 폭으로 조성된 고려시대 보도석열과 그 위에 조선시대에 설치한 보도석열이 확인됐다. 이러한 보도석열의 변화는 사찰 구역변화에도 관계있는 것으로, 현재의 탑과 용금루 중간쯤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담장유구 등을 통해 고려시대의 사찰 구역이 조선시대에 와서 현재와 같은 규모로 확

장됐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도석열 외에도 조선시대 건물지 2동, 고려시대 건물지 1동과 담장시설, 고려·조선시대 부석시설 3기 등의 유구가 확인됐다. 한편 월정사지는 2002년 1차 발굴조사에서 송나라 회종 대에 사용된 동전인 송녕중보(崇寧重寶 1102~1106), 성안원보(聖元元寶)가 출토돼 탑의 조성 시기가 12세기경임이 밝혀진 바 있다. 또 조선시대 외적 층에서 출토된 암막새에서 세종 28년인 1446년 4월에 양명대군과 효령대군에 의해 월정사가 중창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회암사지 6차 발굴

건물지 모두 55곳... 칸수 265칸 초석 주위 할석 돌린 적심 이체

경기도 박물관과 기전문화재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양주 회암사지 6차 발굴조사 결과 55개소의 건물지에서 확인된 전체 건물지 칸수가 265칸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보산회암사주조기>에서 목은 이색(1328~1396)이 262칸이라고 기록한 부분과도 거의 일치하는 결과다. 12월 9일 열린 현장 지도위원회에서 조사단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건물지의 흔적이 육안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회암사지 전체에 60개소 가량의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광전지 보광조사에서는 4차례에

결친 변화와 정면 5칸, 측면 5칸의 건물지 규모를 알 수 있는 초석 배치를 확인했다. 이는 목은 이색의 보광전 5칸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초석 주위로 작은 할석을 1열로 돌려 적심(전통기옥을 지을 때 땅을 다지기 위해 작은 돌을 쌓는 것처럼 만들 어놓은 것이 특이한 점으로 지적됐다. 소상영 조사팀장은 "이외에도 조사 구역 내에서 목욕시설로 추정되는 석조가 발견됐다"며 "이로부터 석조 건물지 아궁이에서 많은 양의 물을 데우기 위한 대규모 함실이 축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명: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명: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명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12월 셋째주, 넷째주 (월~금)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파동명상요법으로 수많은 강력사건(유괴살해강도, 강간)을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 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 다.